



말하기 어려운 병(치질)

많은 사람들은 항문병이라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잘 모른다.

이 항문병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치질인데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꼴로 있지만 남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암, 성인병 같은 많은 병들 중에서 이 병은 병축에 끼워주지 않고 우리 신체에서 가장 불결하다고 느끼는 부위이므로 수치심으로 의사에게도 말하기가 힘들다.

치질환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하나는 환부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봐 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 병어리 냉가슴 앓듯 말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음에 피가 나고 항문이 아프면 내출혈, 암이 아닌가 하여 가슴이 덜컥 내려 앉다가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며칠 좌욕하고 연고 발라 증상이 나오면 괜찮구나 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다 다행히 나오면 괜찮지만 치질이란 병은 피로하거나 폭음한 후에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치질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급 병이다. 동물에게는 치질이 없다. 인간이 서서 걷고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부터 치질은 시작되었다

◎ 치질(치핵)이란?

치질이란 항문질환을 통칭하는 일반 용어로 정확한 병명은 아니나 항문질환 중 대부분이 치핵이기 때문에 치질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한다.

항문 및 직장하부에는 정맥혈관들이 그물처럼 모여 있는데 이 정맥들이 여러 원인에 의해 주변조직까지 늘어나 덩어리를 형성하여 밑으로 빠지거나 출혈, 혈전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항문부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치핵(치질)이다.

치핵은 항문과 대장 경계부의 상부에 생기는 내치핵, 바깥쪽에 생기는 외치핵 등이 있다.

◎ 치질의 원인

원 인	원인분석	비 고
① 혈액 순환의 장애	오래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사람은 항문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므로 치질이 생긴다.	평상시 직장 안의 압력은 20~24mmHg이었다가 배변 시 힘을 가하면 직장내압이 120~200mmHg로 상승한다. 항문의 압력은 누워 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에 약 3배의 압력이,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볼 때 6~10배의 압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항문 부위 정맥은 정맥관이 없으므로 쉽게 항문 정맥을 팽창시켜 치질이 발생한다.
② 자극성 강한 음식과 음주	맵고 짠 음식, 후추, 음주는 항문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유전적 요인	부모가 항문 주위가 약한 체질은 자식들도 물려받게 된다.	
④ 오랜 설사, 심한기침, 잦은 관장	오랜 설사, 잦은 관장은 항문점막이 충혈되어 치질에 걸리기 쉽고 심한 기침 역시 항문에 압력을 높여주어 치질이 악화되기 쉽다.	
⑤ 임신, 출산, 변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자궁이 항문을 눌러 압력을 받게 되고 변비 역시 항문부의 압력을 높인다.	

◎ 치질의 증상

처음에는 변을 볼 때 화장지에 묻거나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심하면 주사기로 쏘듯이 나올 수도 있고 변기가 빨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된다.

그리고 배변시에 치질이 항문 밖으로 빠져 나오며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면 몹시 아프다.

1) 내치핵(내치질)의 증상

증 상	
제 1 도	배변시 또는 항문에 힘을 줄 때 내치핵이 충혈되고 어찌다 한 번씩 화장지나 변에 피가 묻는 경우
제 2 도	배변 등으로 힘을 줄 때 항문 밖으로 덩어리가 튀어나오지만 저절로 들어가서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제 3 도	배변시 쉽게 튀어나오며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간다.
제 4 도	덩어리가 계속 나와 있거나 힘을 주거나 걸으면 금방 나오는 경우로 손을 써도 들어가지 않는다.

2) 외치핵(외치질)

항문밖에 생기는 것으로 수치질이라고 하며 항상 밖에 나와 있고 혈전성외치질, 부종성외치질, 피부꼬리 세 종류가 있다.

① 혈전성외치핵

항문 곁에 손가락마디 만하게 불거져 나온 혹으로 갑자기 발생하고 작은 것은 별로 안 아프나 큰 것은 상당히 아프다.

② 부종형외치핵

부종형외치핵은 항문 곁이 전체적으로 부어서 탱탱하며 만지면 약간 말랑하나 꽤 아프다. 걷기도 앉기도 힘들다.

③ 피부꼬리

아무런 증상 없이 항문 끝에 꼬리처럼 피부가 늘어난 상태로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혼합치핵

위에서 말한 내치핵과 외치핵이 복합적으로 있는 치질로 치질환자의 70%를 차지한다. 🍌

〈출처 : 메드시티〉